

## 전자책 및 전자저널 목록규칙(안)을 준비하며



### 글 | 정연경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ykchung@ewha.ac.kr

도서관에서 정보 조직은 2천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목록 도구와 원칙은 130여 년 전에 처음 출현했고 그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정보의 조직, 접근, 공유를 위해 도서관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어왔으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왔다. 이제는 인터넷과 웹 기술의 출현과 확장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의 생성, 배포, 사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보 조직은 그 변화의 속도를 더해 가고 있다.

2003년에 발행된 한국목록규칙 제4판(이하 KCR4)은 한국목록규칙 제3판(이하 KCR3)이 발행된 지 20년이 지난 후에 발행된 목록규칙이다. 1998년부터 5년이 넘는 오랜 기간과 당시 목록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KCR3이 단행본과 같은 전통적인 인쇄자료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KCR4는 도서관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록규칙으로 개발되었다. KCR4는 목록규칙의 상세한 설명, 적절한 예시와 함께 총칙과 기술총칙, 자료유형별 목록규칙으로 구성되어 목록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도구가 되어 왔다.

그러나 KCR4가 거의 10년 가까이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제공하는 자료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특히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전자책과 전자저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몇 년 전부터 목록 담당 사서들로부터 전자책이나 전자저널과 같은 원격접근 전자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상세한 목록규칙에 대한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원격접근 전자자료인 전자책과 전자저널의 목록규칙을 새로 펴내기 위해서는 KCR4를 전면 개정하여 전 세계 목록규칙의 새로운 동향을 모두 반영한 한국목록규칙 제5판(KCR5)을 펴내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따라서 한국도서관협회의 목록위원회는 이에 관한 논의를 지난 4월에 처음 시작하여 KCR4에서 제외된 접근점에 대한 논의와 원격접근 전자자료와 같이 KCR4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유형의 자료들에 대한 목록규칙 작성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더불어 목록 담당 사서들과 위원회 위원들 간의 회의를 거듭하면서 전자책과 전자저널의 목록규칙에 대한 시급성과 함께 KCR4의 전면적인 개정은 국제목록원칙 2009를 바탕으로 상당한 기간의 논의와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특히 KCR4는 서지기술 부분만 있고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면 개정을 하는 경우, 국제목록원칙 2009, RDA와 ISBD 2010, 전거까지 포함하는 목록규칙의 틀을 제대로 갖추어 내놓으려면 수년의 준비 기간이 앞으로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서관협회의 목록위원회가 도서관 현장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전자책이나 전자저널에 관한 목록규칙을 마냥 묵인한 채 지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목록위원회는 당장 목록 담당 사서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책과 전자저널의 목록규칙을 발행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목록전문위원회는 4월부터 목록전문위원들과 2~3주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 초반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종합목록운영위원회 산하 표준화분과위원회와 회의를 개최하였고, 각 위원들이 작성한 전자책 기술규칙 내용을 모두 수합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전자책의 정의와 범위 등 기술규칙의 각 항목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 위원들의 의견이 상이한 항목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모두 결정하였다. 회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파일을 각 위원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검토하였으며, 추가 예시의 작성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들 모두가 각자 검토할 차례에 가능한 많이 추가하였다. 위원들의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위원들이 새로이 추가한 예시 중 가장 적절한 예시를 선택하고 추가 예시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이렇게 5개월 넘게 진행하여 지난 10월 전국도서관대회에서는 전자책 목록 기술규칙(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세미나에 참석한 다수의 목록 사서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현재는 지난 9월부터 진행해 온 전자저널 목록 기술규칙(안)을 전자책 목록 기술규칙(안)을 개발했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여 1차 마무리한 상태로 연

말까지 면밀히 검토한 후, 목록 담당 사서들로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상반기에 전자책과 전자저널의 목록규칙을 기존 KCR4의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발행할 예정이다. 전자책과 전자저널 목록규칙의 기본적인 체재는 KCR4와 동일하게 총칙,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자료특성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 사항을 순서대로 다룰 예정이지만 실제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기술 총칙 등 다른 장을 참조하러 기존의 KCR4를 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담은 독립된 단행본 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다.

- 이다.
- 혁신적인 도구, 기술, 표준이 정보 조직과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며, 모든 이러한 개발은 문헌정보 학계 전문가와 사서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목록의 세계는 이론과 실재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학계의 연구자들과 도서관 현장에서 목록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 간의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다.

## 전자책과 전자저널 목록 규칙의 기본적인 체재는

KCR4와 동일하게 총칙,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자료특성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 사항을 순서대로 다룰 예정이지만 실제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기술 총칙 등 다른 장을 참조하러 기존의 KCR4를 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담은 독립된 단행본 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2013년에 발행될 전자책과 전자저널의 목록규칙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되고 보다 발전적인 목록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향후 국제목록원칙 2009에 따른 한국목록규칙 제5판의 제정과 이를 실현하고 적용하면서 발전적인 제안이 도출되고, 변화하는 목록 환경을 반영한 목록원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의 재정적인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목록에서의 변화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누구보다도 우리가 정보를 조직하는데 적합한 도구, 기술, 표준을 잘 준비해서 이러한 도전이 불안과 부담이 되지 않고 도서관 발전의 기회와 도약을 위한 흥미로운 과정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㉞